

【‘잠시 주차제’ 주요 보도내용】

○ 연합뉴스	(인터넷)	‘주차난’ 강남 주택가 7월부터 무료로 잠시 주차 허용	5/19
○ 중앙일보	(인터넷)	“우리 집 앞에 잠깐 세우세요” 강남 골목길 방문객에 열린다	5/19
○ SBS	(인터넷)	강남구에서 잠시 주차하세요!	5/19
○ TBS	(인터넷)	강남 주택가 7월부터 무료로 잠시 주차 허용 전망	5/19
○ 이데일리	(인터넷)	강남구, 거주자 우선주차장 사용 가능한 ‘잠시주차제’ 도입 추진	5/19
○ 뉴스캔	(인터넷)	서울 강남구, 7월 도입 목표로 ‘잠시주차제’ 추진	5/19



2016.05.19 (목)



대전 30.6°C



#D 최신기사 정치 북한 산업/경제 금융/증권 IT/과학 사회 전국 연예 문화 스포츠 세계 한민족 사람들 여행/축제 시문/칼럼 비주얼뉴스

美中 남중국해 또 일촉즉발... "中, 美정찰기에 15m 초근접"(종합)

4분 전



최신기사

뉴스를 > 최신기사

'주차난' 강남 주택가 7월부터 무료로 잠시 주차 허용

송고시간 | 2016/05/19 06:31



서울 강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서 '잠시주차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좁은 길 양쪽으로 집들이 늘어선 서울 강남 골목길에서는 주차 공간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무료로 잠시 차를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잠시주차제'를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획의 96.1%가 24시간 전일제로 이용되고 있다. '함께 쓰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공유되는 공간은 2.1%에 불과하다.

특히 전일제로 운영돼 주차 공간이 사실상 사유화 되는 경우가 많았고, 출근 등으로 낮 시간 비어 있는 비율이 30~40%에 달했다.

또 올해 1분기 기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대기자가 1만명이 넘는 등 주차 공간을 두고 각종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시주차제'는 사용자가 외출 시 빈 공간을 방문 차량에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전일 배정자가 대상이다.

다만 짧은 시간 무료로 제공되는 것인 만큼, 방문객은 배정자가 연락하면 5분 이내 즉시 이동해야 한다. 연락자가 없거나 전화가 되지 않으면 부정 주차 요금이 부과되고 차량은 견인된다.

임플란트 80,000건 달성, 합리적 가격은?

- 전문가가 추천하는 최고의 안마의자, 이유는?
- 며칠성수기 콘도 예약때문에 아직도 고민 중??
- 주식 대박 VS 폭박, 한끗 차이.. "미월수가"
- 한달만에 6억 돈배락.. 연예인 주식잡부는 누구?
- 3억 빚 갚고 17억 번 男, 알고보니.. 충격
- "임플란트" 합리적 가격은 얼마?
- 현재 내 나이 살비보철료는?
- 직장인 30%이상 영타리 정보로 주식 폭박 경험해..

핫뉴스

- 구급, 충돌사고에도 보행자 될거나까지 않는 '...
- 인도 여성사기범, 미쓰에미 수지 사진 이용해 허위...
- 일본 아동성학대 게임 '살비 키우기' 유포사이트 폐쇄
- '아이가 납치됐어요'...보이스피싱 예방한 편의점 직원
- 30개월 친딸 밀대자루로 때려 살해 엄마 징역...
- 이라크, 학생들 커닝 막으려 전국 인터넷3시간 차단
- 사할서 신도와 성관계에 동영상까지... "땡중" 말미
- 아들 전 동거녀 폭행...신체포기각서 받은 아버지



핫뉴스 전체보기



구는 배정자가 구 도시관리공단에 신청하면 해당 주차 구역에 '잠시주차제' 적용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일 계획이다.

또 전일제 배정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차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자료사진)
2016.05.19 06:31 10/10

ts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5/19 06:31 송고



많이본뉴스

더보기

< 종합 정치 산업/경제 >

- 1 3살 아들 살해한 처제... '형부 성폭행 더 있었다'
 - 2 이세돌, 프로기사회 탈퇴 선언... 일괄적 공제 불만
 - 3 경찰, 이창명 '음주운전' 부인에도 기소의견 출송
 - 4 중국서 의료진 폭행 '심각'... 수술중 의사 말치에
 - 5 인도 여성사기범, 미쓰에이 수지 사건 이용해 허위
 - 6 복사기로 위조수표 만들어 성매매한 신화대 대학
 - 7 '요금까지 공짜라더니' 지인 개인정보로 대포폰 유
- ▲ 폐지중던老夫부 집에갈뻔 뻔츠물야.. 충격!
 ▲ 주식할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 차 바꾸고 싶은데... 내 차 "팔면" 얼마?
 ▲ 짝 출신 "히역" 재벌男, 뒤를캐보니..경악



눈피로, 시력저하, 노인해결
이것 하나면 끝!



전문기가 추천하는 최고의
안마의자, 이유는?

"우리 집 앞에 잠깐 세우세요" 강남 골목길 방문객에 열린다

[중앙일보] 입력 2016.05.19 08:57 수정 2016.05.19 15:07

2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 강남의 골목길에서 '잠깐 주차'가 가능해진다.



서울 강남구는 주택가에 난 좁은 골목길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무료로 잠시 차를 세울 수 있게 하는 '잠시주차제'를 7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사실상 사유화 되어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강남구가 마련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96.1%는 24시간 전일제로 이용되고 있다. '함께 쓰기' 사업에 따라 공유되는 공간은 2.1%에 그쳤다. 전일제 이용자들이 출근이나 외출을 하는 오후 시간에는 주차장의 30~40%가 비어있다.

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외출하면서 비워둔 공간에 방문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를 생각해냈다. 짧은 시간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방문객은 주차공간의 원 배정자가 연락을 하면 5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부정 주차로 딱지를 받고 차량은 견인된다.

차를 세워두고 멀리 갈 수는 없지만 근처에 간편한 불일을 보는 운전자들에게는 유용한 제도가 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전일제 이용자가 구 도시관리공단에 직접 신청해 '잠시주차제' 참여 의사를 알리면 해당 구획에 스티커를 붙여준다"면서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웃과 나누는 주차 문화 정착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뉴스 > 라이프

[카드뉴스] 강남구에서 잠시 주차하세요!

김수명 기자

입력 : 2016.05.19 17:11 | 수정 : 2016.05.19 17:30

32

댓글 0 | 좋아요 0

Facebook Twitter YouTube Google+ Naver



많이 본 기사

- 7 "악값 감당 못 해" 미국서 투병중...
- 8 北, 초당 400억 물 멋대로 방류...어...
- 9 갑자기 빠진 버스 뒷바퀴...차량...
- 10 [취재파일플러스] B셔 뜨는 3평...
- 11 조영남, 대외 활동 취소...대작 주...
- 12 틀린 현판 10년 걸어도 경복궁...

2/2 < >

주요뉴스

- "5·18은 북한군 소행" 지만원, 항의하는 女 얼굴 '푹'
- "건물서 살인사건" 8천여 경매 나온 '대저택' 내부는...
- "내 애 먼저" 수술 중 망치로 '황'...끝내 사망한 의사

여긴 다들 질!

많이 본 기사

- 7 "악값 감당 못 해" 미국서 투병중...
- 8 北, 초당 400억 물 멋대로 방류...어...
- 9 갑자기 빠진 버스 뒷바퀴...차량...
- 10 [취재파일플러스] B셔 뜨는 3평...
- 11 조영남, 대외 활동 취소...대작 주...
- 12 틀린 현판 10년 걸어도 경복궁...

2/2 < >

주요뉴스

- "5·18은 북한군 소행" 지만원, 항의하는 女 얼굴 '푹'
- "건물서 살인사건" 8천여 경매 나온 '대저택' 내부는...
- "내 애 먼저" 수술 중 망치로 '황'...끝내 사망한 의사




7월부터 강남구에서 시행되는 '잠시주차제', 규칙은 간단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되, 원래 배정자가 나타나면 즉각 비켜주는 겁니다. 제때 비켜주지 않으면, 부정 주차 딱지와 함께 견인됩니다. 이제 강남구에서 무료로 '잠시' 주차하세요.

기획/구성 : 김민영
 그래픽 : 정혜연
 (SBS 뉴미디어부)

댓글 0 | 좋아요 0



 김수영 기자 >

♡ 405

일력 : 2016.05.19 17:11 | 수정 : 2016.05.19 17:30

식당생활 도아우

많이 본 기사

- 7 "약값 감당 못 해" 미국서 투병중...
- 8 北, 초당 40여 몰 잇머로 방류...어...
- 9 갑자기 빠진 버스 뒷바퀴...차량...
- 10 [취재파일플러스] 8서 뜨는 3평...
- 11 조영남, 대외 활동 취소...대각 주...
- 12 틀린 현판 10년 걸어도 경복궁...

2/2 < >

주요뉴스

-  "5.18은 북한군 소행" 지만원, 항의하는 女 얼굴 '찍'
-  "건물서 살인사건" 8천여 경매 나온 '대저택' 내부는...
-  "내 애 먼저" 수술 중 망치로 '광'...골내 사망한 의사
-  "행운기 없어도" 지능형 무기' 1천만 개면 몰살'
-  하루이침에 롯데맨 된 삼성맨, "오히려 편해" 왜?
-  건설사 대표 실종에 전무가 검색한 단어는...소름
-  정신병원 탈출한 男 "두고 보자" 총...광란의 질주
-  '혈무 성폭행' 아이 낳은 女, "더 당했다" 충격 고백
-  얼얼 드러낸 '강남역 살인' 피의자...묵묵부답
-  관절염 아내 살해한 남편, 처참한 이유...'美의 민낯'

취재파일

살인사건 일어나 日 대저택, 얼마...



FM 95.1 Mhz

eFM 101.3 Mhz

TV

뉴스

편성표

교통정보

tbs소개

뉴스홈 | 수도권 | 정치 | 경제 | 사회 | 교통 | 과학 건강 | 스포츠 문화 | 국제 | 많이 본 뉴스

강남 주택가 7월부터 무료로 잠시 주차 허용 전망

신지윤 기자 tbs3@naver.com | 기사입력 2016-05-19-08:22

서울 강남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무료로 잠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시 주차제'를 오는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주차제'는 사용자가 외출 시 빈 공간을 방문 차량에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전일 배정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짧은 시간 무료로 제공되는 것인 만큼 방문객은 배정자가 연락하면 5분 이내 즉시 이동해야 하며 연락처가 없거나 전화가 되지 않으면 부정 주차 요금이 부과되고 차량은 견인됩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목록 보기

많이 본 뉴스

- 1 <열린아침 김만홍입니다> 안민석 &9...
- 2 5.18, 기억해야 할 광주의 열흘
- 3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무쟁점 법안 130...
- 4 <열린아침 김만홍입니다> 김홍걸 &9...
- 5 '신해철법' 법사위 통과...사저존치법 등 1...
- 6 '곡성' 300만 톤파 순항중...'계춘할망' ...
- 7 10시 생활경제뉴스
- 8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김경진...
- 9 강남구, '수서동 임대주택 건설' 서울시 ...
- 10 현대상선 오늘 용선료 협상 마지막 담판...

힘내라 두벽이

+ 더보기



<힘내라 두벽이> 사고나도 대책없는 아파트...
【앵커멘트】 tbs 연중기획 걷고 싶은 도시 프로젝트 '힘내라 두벽이', 오늘...



<힘내라 두벽이> 유영무실 '스쿨존'...어린...
【앵커멘트】 tbs 연중기획 걷고 싶은 도시 프로젝트, '힘내라 두벽이' ...



<힘내라 두벽이>보행자 햇갈리게 하는 신호등
【앵커멘트】 tbs 연중기획 걷고 싶은 도시 프로젝트, '힘내라 두벽이', 오...

기획취재

+ 더보기



유명BJ 생방송 실수! 셀트리온 주식 발설...생 난리!!
 주식으로 2년만에 15억의 수익을 올린 손은정(33세)씨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손씨는 최근 주식정보제공업체의 서비스를 받고 '대박 수익률'을 실현한 주인공들 중 한명으로, 국민배우 최수종의 적극추천을 받고 있는 업계 1위...

자세히보기 >

강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용 가능한 '잠시주차제' 도입 추진

입력시간 | 2016.05.19 11:10 | 유수정 기자 crystal@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독자의견 | 좋아요 | 댓글 | SNS | 공유

이메일 | 인쇄 | 확대 | 축소

▶ **임플란트 안심치료! 합리적 가격은?**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주차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강남 골목길 일대에 일시적인 무료 주차가 허용될 방침이다.

서울시 강남구는 오는 7월 중으로 24시간 전일제로 이용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획에 일시적으로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 '잠시 주차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잠시 주차제'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의 배정자가 외출했을 경우 해당 공간에 방문 차량이 잠시 주차할 수 있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강남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획의 96.1%가 24시간 전일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 되는 경우가 많았고, 출근 등으로 낮 시간 비어 있는 비율이 30~4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 '함께 쓰기' 사업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유되는 공간은 2.1%에 불과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기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대기자가 1만명이 넘는 상태라 주차 공간을 두고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단, 말 그대로 짧은 시간의 주차만 허용하는 만큼 배정자가 차량의 이동을 요청했을 경우 5분 이내에 바로 차량을 이동해야한다.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부정 주차 요금을 부과하고 견인 처리 될 수 있다.

보재민 기자 | 주차차단기전문 파크텍 코리아

유기농 여주진액
 참바른 여주 3가지 특별함

주요 뉴스

종합	경제·금융	증권	기업
----	-------	----	----

- [경제·금융]** 국책은행 자본확충 직접출자편도...
- [증권]** 증시에서 사라진 연기금...허벅기 구원...
- [기업]** 한진해운 자율협력에 한발짝, 6월 만.
- [부동산]** 고속철 개통 호재 타고, 동탄2신도시...
- [IT·과학]** 흑목 혹은 재앙...사건문거들이 본 미...
- [정치]** '신해철법' 본회의 통과...외교사고...
- [사회]** '옥시'前 외국인 재무이사...묵묵부답...
- [국제]** 중국무용, 월간석탄 생산 2년간 10...
- [연예·스포츠]** '이이'씨; 17개국 수출...역대 최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여 구현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개인화 맞춤뉴스

- 1 '미스 비키니' 활아영, '스타킹' 등장...감탄...
- 2 이정현 '차대통령'이 무릎 꿇고 임기 반납...
- 3 카셰어링 쏘카, 서울시 나눔카 2기 사업자...
- 4 '편한세상 미사 시티' 분양...조방권...역세...
- 5 미사지구 호수공원 앞 대림 '편한세상 시...
- 6 '근육여왕' 지연우 '공황장애', 마른 체형...
- 7 현대상선, 용선료 인하 8부 늘선 넘었다...
- 8 대형마트서 해고되자 수차례 소란피운 자...
- 9 '미스터 대구' 이효찬, '꽃비키니' 하이 윤소희
- 10 낙후된 영등포도심권 재생 추진...'죽방촌'...

많이 본 뉴스

- 1 호주패션위크, 디자이너 에마 멀홀랜드 작품 선택
- 2 두경, 부담없이 여세요~2인1원대 오픈카 유혹
- 3 공천현금 '박준영 당선자 구속영장 기각(종합)
- 4 고속철 개통 호재 타고, 동탄2신도시 5500가구...
- 5 '베리잘'美호yet 누른 스웨덴 신원 전투기 '그리...
- 6 '7조원 시장잡아라'...뜨거워지는 홈케어 시장
- 7 2017년 달력 장식할 '물광 소방관 찾아라'...서울...
- 8 이세돌, 프로기사회 탈퇴 선언...비특 기사중처음
- 9 용선료 인하 사할 건 현대상선...직원 4명 회
- 10 ①중국발 TV시장 재팬...명품으로 맞서는 삼성LG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자생한방병원 자가테스트 GO

무릎 관절염 오심견

※엘로모바일

가족을 추천하면

통신비가 할인된다

HOME > 사회 > 지역

서울 강남구, 7월 도입 목표로 '잠시주차제' 추진

김재협 기자 | 승인 2016.05.19 10:54

댓글 0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좁은 길 양쪽으로 집들이 늘어선 서울 강남 골목길에서는 주차 공간을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무료로 잠시 차를 세울 수 있을 전망이라고요?
- 서울 강남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잠시주차제'를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19 일 밝혔습니다.
- 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거주자 우선 주차장 구획의 96.1%가 24시간 전일제로 이용되고 있죠?
- '함께 쓰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공유되는 공간은 21%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일제로 운영 돼 주차 공간이 사실상 사유화 되는 경우가 많았고, 출근 등으로 낮 시간 비어 있는 비율이 무려 30~40%에 달했습니다.

- 또 올해 1분기 기준 거주자 우선 주차장 대기자가 1만명이 넘는 등 주차 공간을 두고 각종 민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데요?
-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잠시주차제'는 사용자가 외출 시 빈 공간을 방문 차량에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또 거주자 우선 주차장 전일 배정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짧은 시간 무료로 제공되는 것인 만큼, 방문객은 배정자가 연락하면 5분 이내 즉시 이동해야 하며, 연락처가 없거나 전화가 되지 않으면 부정 주차 요금이 부과되고 차량은 견인됩니다.

- 구는 배정자가 구 도시관리공단에 신청하면 해당 주차 구획에 '잠시주차제' 적용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일 계획이죠?
- 또 전일제 배정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 관계자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차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협 기자 easypol1@gmail.com

<저작권자 © 뉴스캐ن,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장 많이 본 기사

- 1 AOA 설현·지민, 안중근 의사 '긴도강' 미세
- 2 '가정의 달, 가족들에게 선사하는 음악 종합
- 3 세종명품 여주시] 성군 세종대왕 탄신 619
- 4 [여주시] "토종물고기 통자개 치어 6만" 마
- 5 성남FC, 골키퍼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 6 강원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특수기술자
- 7 국내 조선 빅3 모두 생산능력 대폭 줄인다
- 8 가평군 청평호서 50대 남성 시신 있는 승용
- 9 새누리당 상임전국위 무산...정국수 부족
- 10 마오쩌둥서적, 1년여 사이 행정처분·제품회



포토뉴스



신체 은밀한 부위에 마약 숨겼지만 인천공...



불벌더워지만 무더워질터 절반은 주말야